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함께 읽는 방안

— 유키 번역에 나타난 특성들을 바탕으로 —

유선명*

1. 들어가며

금번 발간된 『새한글』은 대한성서공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공인역 성경으로,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이들과 교회학교’를 위해 준비한 21세기 역본이다.¹⁾ 한 사회의 언어는 그 구성원들 간의 복잡미묘한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들려야 할 성경 역본 역시 쉽 없는 수정 작업을 통해 개선, 발전해야만 한다.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히브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 smlyu@bu.ac.kr. 본 논문은 2025년 4월 8일 영락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25년 백석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2025-0567).

- 1)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3.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새한글』 표준 안내서인 이 책에 성서학자이자 성경 번역 전문가인 두 학자의 신약 및 구약 해설과 더불어 국어학자에 의해 세심하게 집필된 “『새한글성경』 간추린 국어 해설”이 포함된 것은 『새한글』이 특정 독자층을 위한 대안적 역본이 아닌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한국교회의 공인역으로 기획되었음을 반증한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특정 세대를 위한 번역의 정당성과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이슈들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성서공회의 논의 가운데 ‘디지털 네이티브’로 묘사되는 다음 세대의 정보 취득과 독서 습관의 특성 문제는 번역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이슈이다. 이들에 대한 분석과 그에 상응하는 ‘독서 전략’에 관한 소개서로는 아래 책들을 참조하라. J. 아서스, 『말씀을 낭독하라: 커뮤니티 성경 읽기』, 김은정 역 (과주: 국민북스, 2012); 박진우, 김예란, 『디지털 시대의 읽기문화: 쟁점과 전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N. 배런,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종이에서 스크린, 오디오까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읽기 전략』, 전병근 역 (서울: 어크로스, 2021).

『새한글』과 기존 『개역개정』의 유사, 상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²⁾ 필자는 본 연구에서 『새한글』이 단지 젊은이들의 언어 습관을 반영하는 ‘현대적 번역본’만이 아닌, 원문의 철저한 분석에 근거해 명확성을 추구하는 ‘정확한 번역본’의 자격이 충분함을 확인한 후, 『새한글』을 한국교회의 예전에서 사실상 공인본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개역개정』과 상보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는 대한성서공회가 주관하는, 21세기를 위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 위원회’에 참여해 그 작업의 일환으로 욥기 본문의 수정 제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본고에서 『새한글』의 특징들을 밝히는 과정에서 욥기 본문의 수정 제안들은 매우 유용한 기준점이 되었다. 욥기는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도 본문의 난해함이 유별난 책이다.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은 희귀 단어들(hapax legomenon), 운문이 갖는 특성을 표적 언어에 반영하는 문제, 책 내용 자체의 해석 이슈 등으로 번역자의 역량과 의지를 시험하는 책이다.³⁾ 따라서 번역본으로서의 『새한글』의 특성과 장단점을 시험하기도 좋은 본문이라 판단했다. 이곳에 직간접으로 반영된 ‘수정 제안’들은 성서공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다. 그러나 개

2) 「성경원문연구」 51 (2022)에 실린 신약학자 이두희와 국어학자 민현식의 글 및 『새한글』의 번역 원리와 특징에 관한 상세한 해설은 아래 글들을 참조하라.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224-251;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353-384. 구약에 대해서는 박동현,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chan&wr_id=26과 「성경원문연구」 56호 별책(2025)을 참조하라. 이들을 포함한다수의 자료는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자료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chan에 공개되어 있다. 신약에서 선별된 본문들을 『새한글』과 타 역본들을 비교한 연구로는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2024)이 유용하다. 「성경원문연구」 50호 별책(2022)은 21세기를 위한 『개역개정』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 20편을 담고 있으며, 『개역개정』 재개정작업에 참여한 학자들도 집필에 참여하였다.

3) 번역을 어렵게 하는 욥기 본문의 난해함은 성서학자와 성경 번역가들에게는 친숙하지만, 낭독을 비롯한 공적 사용을 염두에 둔 공인 역본들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욥기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소개글과 일정 수준 이상의 학문성을 갖춘 주석류가 큰 도움이 된다. 무수한 욥기 주석들 가운데 해석의 명료함과 균형 감각으로는 T. 룬덴 3세, 『욥기주석』, 임요한 역 (서울: CLC, 2017); 연구조사의 방대함과 논의의 포괄성으로는 D. J. A. 클린스, 『욥기 1-20』, WBC 성경주석 17,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6); D. J. A. 클린스, 『욥기 21-37』, WBC 성경주석 18A,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9); D. J. A. 클린스, 『욥기 38-42』, WBC 성경주석 18B,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14); 실천적 적용에 유의한 강해서로는 C. 애쉬, 『욥기: 십자가의 지혜』, 전의우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14)이 유익하다. 욥기 연구사 개관으로는 하경택, “욥과 욥기의 문제: 욥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2004), 47-76;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4 (2015), 264-301; 권지성, 『특강 욥기』 (서울: IVP, 2019); M. 래리모어, 『욥기와 만나다』, 강성윤 역 (서울: 비아, 2021) 등을 고려할 만하다.

정 작업의 성격상 이들 제안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차세대 본문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이 데이터가 21세기를 위한 한국어 성경 번역의 방법론과 결과물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새한글』의 최종 결과물은 필자와 다른 연구자들이 『개역개정』 본문의 개선을 위해 제시한 방안들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문체나 어휘 선택을 통해 현대성을 강제하는 대신 원문을 잘 반영한 직역을 추구하면서도 유려하고 가독성 높은 역본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2. 『새한글』과 『개역개정』을 함께 읽는 방안

구체적인 본문을 들어 『새한글』과 『개역개정』을 함께 읽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2.1. 욥기 1:1상반

	אִישׁ הָיָה בְּאֶרֶץ-עוּז אִיּוֹב שְׁמוֹ
『개역개정』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한글』	한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ESV	There was a man in the land of Uz whose name was Job,
NIV	In the land of Uz there lived a man whose name was Job.

욥기를 여는 이 첫 문장은 번역에 있어서 근원 언어와 표적 언어 간의 어순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한 시금석을 제공한다. 히브리어 원문은 אִישׁ(한 사람)를 초입에 등장시키는 다소 이례적인 어순을 채택하고 있다. אִישׁ הָיָה בְּאֶרֶץ-עוּז אִיּוֹב שְׁמוֹ(한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에. 욥은 그의 이름). VSO(동사-주어-목적어) 어순을 표준으로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 문장은 ‘한 사람’을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 히브리어의 VSO 어순은 표적 언어인 한국어의 SOV(주어-목적어-동사) 어순 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한글』 본문은 고의적으로 히브리어 어순을 따라 의미 요소들을 배치함으로써 다소 생경한 한국어 문장을 제시한다. “한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히브리어 원문과의 어순 일치 면에서 본다면 이 문장은 두 영문 역본(ESV, NIV)보다 원어 문장에 더 근접하고 있다. 이처럼 원문의 요소들이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그 의미를 표적 언어(한국어)에 구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신선한 접근법이다.

욥기 1:1에서 이 어순의 문제는 성경 목상과 설교를 위한 석의적 준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히브리어 원문과 『새한글』 번역에 따르면 이 책은 신정론이나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통치 같은 거창한 주제들을 거론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첫 문장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주제들에 의해 욥기를 분석하는 독법은 자신의 세계관과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질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은 한 사람이 겪어가는 일들을 마주하는 방식의 독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문의 ‘의도’를 살려 번역하다 보면 그 결과물이 표적 언어 구조상 어색할 수 있다. 성서공회가 발간한 해설서에 따르면 『새한글』이 도치문을 다수 채택한 것은 단순히 문체상의 결정이 아닌, 성경 원문의 어순과 그 어순을 통해 전달되는 효과를 한국어로 충실하게 옮기기 위해서이다.⁴⁾ 물론 이러한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새한글』 독자들이 내리게 되겠지만, 욥기 1:1을 비롯한 수많은 구절에서 원문의 구조를 잘 반영하면서도 독자의 관심을 끄는 신선한 독법을 제시한 점에서 『새한글』의 접근이 옳았다고 판단된다.

2.2. 욥기 1:3하반

יְהִי הָאִישׁ הַזֶּה גָּדוֹל מְכֹל־בְּנֵי־קְדָמָם

『개역개정』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새한글』	이 사람은 동쪽의 어떤 사람보다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ESV	so that this man was the greatest of all the people of the east.
NIV	He was the greatest man among all the people of the East.

원문의 의도는 욥의 인품보다는 그의 부와 지위를 표현하고 있어 ‘가장 큰 자’ 혹은 ‘가장 유력한 자’가 적당한 번역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한 자더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부분을 『새한글』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번역했다. 『새한글』의 ‘대단한 인물’은 다소 의역에 가깝지만,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좋은 번역이다. 욥이 일차적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은 욥기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욥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에게 회의적으로 도전한 사탄의 논점이 바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

4)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 해설집 — 마가복음 번역 해설, 시편 1-3장 번역 해설, 국어학적 의의 —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69-70.

겠습니까? 다 당신께서 잘 챙겨주시니 그렇지요.’라는 말에 요약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도전에 응하시면서 당신은 욥을 아직도 신뢰하고 계심을 보여 주신 것이 향후 욥기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의 ‘훌륭한’이 원문이 의도하지 않은 도덕적 수월성을 암시하고 있는 데 반해, 『새한글』은 ‘대단한’을 채택해 욥의 성취를 언급함으로써 원문의 핵심에 정확히 도달하고 있다. 이 절의 경우 『개역개정』의 ‘훌륭한 자’가 오역이라 볼 수는 없다. 욥은 실제로 신앙과 인격, 도덕성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욥기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욥이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새한글』에서는 ‘대단하다’라는 번역어를 선택하여 욥이 누렸던 재산의 규모와 권세를 물리적으로 상상 가능하게끔 하였는데 이러한 번역은 ‘훌륭하다’라는 번역어가 인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욥의 이야기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근원적 배경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역개정』과 『새한글』을 함께 읽는 독자는 한 단어에 다 담기 어려운 욥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음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 욥기 6:15하반

כְּאַפְיֵק נְהָלִים יַעֲבֹרוּ

『개역개정』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누나
『새한글』	마른시내 바닥 물처럼 지나쳐 가 버렸다네.
ESV	as torrential streams that pass away,
NIV	as the streams that overflow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우기에는 활활 흐르다가 건기에는 자취만 남기고 사라지는 건조지역 와디(wadi)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새한글』이 우리말 ‘개울’이 담기 어려운 특성을 ‘마른시내’로 풀어낸 것은 탁월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지나가다’에 비해 ‘지나쳐 가 버렸다네’ 역시 이 시점에서 욥의 정서 즉 친구들의 보호와 지원이 이미 사라져 자취도 남지 않았다는 탄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이 절의 경우 『개역개정』의 번역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새한글』이 오역의 교정이 아닌 순수한 의미에서 개선과 발전을 이룬 성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른시내 바닥 물처럼 지나쳐 가 버렸다네.”는 어휘의 선택이나 어조의 조율에서 특정한 세대를 위해 다른 세대를 건너뛰는 방식의 편향성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 절은 개인의

성경공부나 예배 봉독을 가리지 않고 『개역개정』과 『새한글』을 병행해 사용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좋은 본보기이다.

2.4. 욥기 8:13하반

וְהָיוֹת הַיָּהֹרָה תְּאֵבָר

『개역개정』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새한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희망은 사라져 버릴 것이네.
ESV	the hope of the godless shall perish.
NIV	so perishes the hope of the godless.

현시대 한국어 용례상으로 『개역개정』 본문이 원문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저속한 자’는 도덕성이나 문화적 취향에 대한 판단이 내포된 의미로 들리기 쉬운 데 반해, 본문은 매우 명확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 즉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הָיָה는 본질상 저속한 인격이 아니라 신앙심(경건)의 부재를 가리키므로⁵⁾ 본문의 직역은 ‘불경건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정도가 된다. 참고로 영역은 godless, impious를 많이 쓰고 한국어 역본은 ‘경건치 못함’(『현대인의 성경』), ‘믿음을 저버림’(『새번역』),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는 자’(『공동』) 등으로 처리했다. 『새한글』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개역개정』의 ‘저속한 자’에 비해 의지적 거리두기와 불순종의 행태를 잘 묘사한 탁월한 번역이다. 혹시라도 『개역개정』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저속함’에 대한 심오하고 유려한 설교를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새한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읽었다면 『개역개정』에 기초한 설교라 하더라도 큰 오류를 피할 수 있다.

2.5. 욥기 9:2상반

אֲנִי יָדָעְתִּי כִּי־כֵן

『개역개정』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새한글』	“그 정도는 나도 잘 안다네.
ESV	“Truly I know that it is so:
NIV	“Indeed, I know that this is true.

5) HALOT, vol. 1, 335-337. 욥 20:5에는 악인(רָשָׁעִים), 이사야 33:14에는 죄인(חַטָּאִים)이 הָיָה와 평행적으로 쓰이고 있다.

친구들의 장광설에 ‘그 정도는 나도 당연히 알지만…’이라 답하는 욥의 태도를 반영한 표현이므로 ‘진실로’보다 ‘물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물론 나도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어감을 더 살리는 것일 수 있다. 『새한글』은 ‘물론 나도’의 정서를 ‘그 정도는 나도’로 담아 완곡하게 옮겼다.

2.6. 욥기 11:6상반

וַיִּגְדַּלְךָ תַּעֲלָמוֹת חֲכָמָה

『개역개정』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새한글』	그대에게 지혜의 숨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ESV	and that he would tell you the secrets of wisdom!
NIV	and disclose to you the secrets of wisdom,

『개역개정』 욥기 11:6, 7에서 ‘오묘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각각 תַּעֲלָמוֹת와 חֲכָמָה이다. 7절의 ‘오묘함’은 적절한 번역이어서 앞의 6절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절의 תַּעֲלָמוֹת는 ‘오묘함’(the deep)보다는 ‘감춰진 것’(the hidden)을 가리킨다. ‘지혜의 비밀들을 네게 보이시기를…’로 번역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을 『새한글』은 좀 더 과감하게 ‘숨은 이야기’로 풀어 옮기고 있다.

2.7. 욥기 11:12

וְאִישׁ נְבוֹנִים לֵבָב וְעִיר פִּרְאָ אָדָם יוֹלֵד

『개역개정』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새한글』	머리 텅 빈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겠는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ESV	But a stupid man will get understanding when a wild donkey's colt is born a man!
NIV	But the witless can no more become wise than a wild donkey's colt can be born human.

전체 문장 구조와 비교의 포인트를 살리면 ‘허망한 사람이 지각을 얻는다면 들나귀가 사람으로 태어나리라’로 옮길 수 있고, 실제 ESV와 NIV를 포함한 여러 역본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다. 『새한글』은 두 절이 비교되는 격언(משל = 비교하다) 형태로 푸는 대신, 두 절을 분리해 각각

을 효과적인 수사어문으로 처리했다. 『새한글』이 두 절을 비교하는 히브리 잠언의 형태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잠언의 외형적 특성보다 ‘간략하고 재치있는 언사’라는 잠언의 기능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2.8. 욥기 17:16

כִּי שָׁאֵל תִּרְדָּנָה אִמִּי־יָהֳרָה עַל־עַפְרָה נָתַתּוּ ס

『개역개정』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새한글』	스올(죽은 사람들의 나라) 문턱까지 희망이 같이 내려가겠는가? 우리가 함께 흙먼지 위로 가라앉겠는가?”
ESV	Will it go down to the bars of Sheol? Shall we descend together into the dust?”
NIV	Will it go down to the gates of death? Will we descend together into the dust?”

어구들과 표상(image) 사용의 복합적 이슈가 있어 번역이 다소 어렵다. ‘희망’은 여성 단수 명사인데 ‘내려가다’는 여성 복수형(תִּרְדָּנָה)과 공성 복수형(נָתַתּוּ)이 병용된다는 수적 불일치 문제(אִמִּי־יָהֳרָה)를 고려해 1인칭의 의미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스올의 입구까지 동행하겠으며, 흙먼지 위에 함께 내려앉겠느냐?’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새한글』은 동일한 해석을 실명사 ‘희망’을 살려 좀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2.9. 욥기 19:17하반

וְחַנְתִּי לִבְנֵי בִטְנִי

『개역개정』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새한글』	친형제자매들에게조차 나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네.
ESV	and I am a stench to the children of my own mother.
NIV	I am loathsome to my own family.

HALOT은 ‘חָנָן II’(be loathsome, be repulsive)의 의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는 거리가 있고, 혐오나 멸시에 가까운 태도를 표현한다고 말한다.⁶⁾ ‘내 허리의 자식’은 오해를 살 만한 번역으로 ‘내 모태의 자식들’이 보다 직설

6) HALOT, vol. 1, 335.

적인 번역이 된다. 이것은 ‘내 모태’가 ‘나를 낳은 모태’를 뜻한다면 욥은 자신의 친형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일부 해석자들처럼 ‘내 배’가 ‘내 아내의 아기집’이라면 욥을 혐오하는 이들은 그의 자식들이다. 물론 이 경우 욥의 친자식들이 이미 모두 사망했다는 내러티브와 충돌을 일으킨다. 어쨌든 **וַיִּנְחַם**의 번역으로 ‘가련히 여기다’를 택한 『개역개정』은 원문의 의미를 상당히 왜곡했고, 『새한글』은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네’라는 완곡어법을 구사하면서 혐오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

2.10. 욥기 20:3하반

רוּחַ מְבִינָתִי יַעֲנֵנִי

『개역개정』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새한글』	내게 깨달음을 주는 영이 내게 대답해 준다네.
ESV	and out of my understanding a spirit answers me.
NIV	and my understanding inspires me to reply.

רוּחַ מְבִינָתִי(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영)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문맥에서 소발이 자신의 지력 혹은 지혜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번역은 매우 미흡한 번역이다. 소발은 자신을 각성시키는 혹은 깨닫게 하는 외부의 존재를 상정하고 그(분)의 영이 하시는 일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를 깨닫게 하는 이의 영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정도의 번역이 무난한 해법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ESV와 NIV의 해석은 소발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새한글』의 “내게 깨달음을 주는 영이 내게 대답해 준다네.”는 원문의 의미를 유려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본문은 『개역개정』과 『새한글』을 병행해 읽을 때 얻는 유익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개역개정』만으로 묵상하고 설교할 경우 형성하게 되는 심상과 신학적 메시지는 『새한글』이 열어 주는 이해의 영역과 판이하게 다르다.

2.11. 욥기 22:16하반

נִדְּחָה יְצִק יְסוּדָם

『개역개정』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새한글』	그들의 터가 강물에 휩쓸려 가 버린다네.
ESV	their foundation was washed away.

NIV their foundations washed away by a flood.

함몰은 내려앉은 상태를 연상시키는데, 원문은 강물이 흘렀다는 사실만 있고 결과는 서술되지 않았다. 원어의 함축성을 살려 ‘그들의 터에 강물이 흘러넘쳤느니라.’로 옮기면 좋을 것이다. 『새한글』은 문법상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었다. 원문 **וַיִּצַק יְהוָה יְסוּדֵם**은 양자를 다 허용할 수 있는 모호성을 보이고 있어서 『새한글』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판단된다.

2.12. 욥기 26:7상반

נִטָּה צָפוֹן עַל־תְּהוֹמוֹ

『개역개정』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새한글』 북쪽 하늘을 빈 곳에 펴시는 분,
 ESV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the void
 NIV He spreads out the northern skies over empty space;

נִטָּה는 단순히 북쪽 방향 혹은 북쪽 지역이 아니라 허공에 펼치는 하나의 대상이다.⁷⁾ 고대 근동 특히 우가릿 신화에서 צָפוֹן은 신들이 거주하는 북방의 언덕 혹은 산이다. 다수의 역본이 ‘하늘:땅, 펴다:매달다’의 평행구조와 신화적 배경을 고려해 ‘북쪽 하늘’(nothern sky)로 번역한다. 『새한글』의 ‘북쪽 하늘을 빈 곳에 펴시는 분’은 얼핏 난해한 텍스트의 자유로운 의역처럼 보이지만 학문적 지지가 탄탄한 충실한 번역이다. 『개역개정』의 ‘허공’ 대신 ‘빈 곳’을 취한 것은 세대를 염두에 둔 선택일 수 있지만, 한국어 어법상 보편적 호소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귀에 어색한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를 포기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보여 준다.

2.13. 욥기 29:1

וַיִּסָּף אִיּוֹב אֵינֹב שְׂאֵת מִשְׁלוֹ וַיֹּאמֶר

『개역개정』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새한글』 욥이 자신의 말을 이어 갔다.
 ESV And Job again took up his discourse, and said:
 NIV Job continued his discourse:

7) HALOT, vol. 3, 1046.

מִשְׁלָּה(비유)의 의미를 존중해 לְמַשְׁלָּה וְלִמְשָׁל을 ‘비유로 말하다’, ‘비유를 들어 말하다’와 같은 방식으로 옮길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이 표현은 새로운 혹은 정지 후 재개되는 담론의 시작을 보여 주는 표지(marker)로서, 풍자나 비유라는 장르적 개념에 묶여 있지 않다. 새로운 담화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욥이 다시 말문을 열어 말하되...’ 정도의 번역이 무난한데, 『새한글』은 『개역개정』이 놓친 부분인 서사의 연속을 표기하는 바익톨 형 ‘וַיִּסֹּף’까지 반영해 “욥이 자신의 말을 이어 갔다.”로 부드럽구면서도 원의를 잘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개역개정』만을 읽을 때 이 구절 이후 어떤 것이 풍자인지 의아해할 독자는 『새한글』을 함께 읽는다면 이곳이 앞서 있던 욥의 말을 이어 가는 지점인 것을 금세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14. 욥기 29:4하반

בְּסֹדֶר אֱלֹהִים עָלַי אֶחְלֵל

『개역개정』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새한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사귄이 나의 천막에 있었네.
ESV	when the friendship of God was upon my tent,
NIV	when God's intimate friendship blessed my house,

בְּסֹדֶר אֱלֹהִים는 하나님과의 근접성을 가리키므로 축자적 번역으로는 ‘그 때에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정도를 시도할 수 있다. 『새한글』이 원문의 뜻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유려함을 보여 주는 성공적 케이스이다. 『개역개정』을 보며 장막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의아해할 독자는 문맥을 염두에 두고 『새한글』과 비교함으로써 욥의 회상과 그리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욥도 잃어버린 재산과 자식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그가 반복해서 호소하는 ‘상실의 아픔’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과의 사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בְּסֹדֶר אֱלֹהִים가 요약해 보여 준다.

2.15. 욥기 31:13상반

אִם-אֶמְשָׁל מְשָׁלִים

『개역개정』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새한글』	내가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게 막았는가?

ESV	If I have rejected the cause
NIV	If I have denied justice

זָנַח는 무시 혹은 경멸의 의미이므로 본 절은 ‘내가 그의 권리를 무시했다면’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율법이 보장한 대로 종이 주인에게 근무조건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경우 주인은 그것을 듣고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개역개정』의 ‘권리를 저버리다’는 옳이 가상적으로 말하는 주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새한글』은 여기서 직역 지향이라는 전체적 방향과 차이를 보이는 의역을 채택했지만 종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풀어냈다.

2.16. 욥기 36:3하반

	לְפָנַי אֲתוֹנֵן
『개역개정』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새한글』	저를 만드신 분이 공의롭다 밝히겠습니다.
ESV	and ascribe righteousness to my Maker.
NIV	I will ascribe justice to my Maker.

『개역개정』이 לְפָנַי אֲתוֹנֵן을 ‘내가 의로움을 돌려보내리라.’라는 의미로 번역한 것은 자구적으로 ‘의로움을 주다’에 해당하는 관용구의 모호함을 ‘주다’에서 ‘돌려주다’로 확장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אֲתוֹנֵן의 용례에는 ‘영광을 돌리다’와 마찬가지로 ‘ascribe, give credit, acknowledge’의 의미가 포함된다(NIV, ESV). 따라서 이곳에서는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친숙한 표현 ‘영광을 돌리다’와 유사하게 ‘의를 돌리리라’로 옮길 수 있겠다. 『새한글』은 ‘밝히다’를 사용해 단어 수준에서는 ‘돌리다’와 불일치하지만, 문맥상으로 사실상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원어를 모르는 독자라도 이 절에서 『개역개정』과 『새한글』을 병행해 읽는다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과 제언

여러 면에서 『새한글』은 현행 『개역개정』의 21세기판이 가야 할 곳에 이미 도달해 있다. 그간 현대어 역본은 의미 전달을 위해 직역보다 의역을 지

향하고 문어체와 대비되는 구어체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신학적 의미가 강하게 착색된 어휘들을 무리하게 일상 언어로 교체함으로써 과도한 이질감을 자초한 성향이 있었다. 그에 반해 『새한글』은 동시대 한국어 사용자의 어법에 충실하되 원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직역을 지향한 결과, 기성 세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젊은 세대,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의미 전달에 크게 강점을 보인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새한글』이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서 성공하는 지점은, 한국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기성세대의 귀에 생경함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일 수밖에 없다. 원어 본문의 어감을 살리기 위한 도치 어순이 그 좋은 예이다. 디지털 매체의 환경에 적응한 다음 세대는 짧은 문장을 선호하고 느낌 전달에 필요하다면 기존 문법을 벗어나는 글에 관대하며, 외국어 특히 영어 구조에 익숙한 결과 도치 어순에 그다지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기성세대는 길이가 길더라도 어순과 구조가 정돈된 문장을 선호한다. 특정 독자층에 맞추어진 의도적 선택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새한글』은 젊은이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으로서 훌륭하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성서공회의 의도대로 『새한글』이 모두를 위한 공인역을 지향한다면, 다시 말해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기성세대의 성도들도 편안하고 애정을 가질 성경이 되기를 원한다면, 완성된 성경 자체만이 아니라 성경의 사용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요구된다. 아래에 모든 세대가 『새한글』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3.1. 『개역개정』과의 병행 사용을 위한 의도적 노력

사실상 한국교회의 공적 본문이 된 『개역개정』은 성경의 독자들이 세대 교체를 거듭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독자를 위한 전체적인 개정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되어 21세기판이 출간되면 다음 세대가 『개역개정』 성경에 대해 느끼는 진입 장벽 중 상당 부분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역개정』의 재개정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최소 개정’ 원칙을 따르고 있기에, 원문의 왜곡이 염려되지 않는 한 기존 『개역개정』의 어휘와 리듬, 스타일을 쉬이 바꾸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개정 작업에서 본문의 어휘나 표현을 교체할 경우 가능한 어순이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것을 피하고, 대체 어휘의 경우도 가능하면 기존 어휘와 음절 수가 일치하는 것을 선호하기까지 한다.

즉 『새한글』이 다음 세대에게 친숙해지는 만큼 기존 세대에게는 생경함

이 더해지는 필연적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필자는 『새한글』 출간의 주체인 대한성서공회는 물론, 핵심 사용자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목회자들이 두 성경 간에 양자택일 혹은 양쪽을 오가며 읽는 방식보다 두 성경을 늘 의식하며 함께 읽을 수 있는 대안과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개인 성경공부와 설교 준비에 임할 때 의도적으로 두 역본을 다, 고르게 사용한다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격하며 대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한 역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조한 부분을 다른 역본은 더 충실하고 감성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공예배 시 성경 봉독을 이중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성도들이 친숙한 『개역개정』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 『새한글』로 다시 읽고 듣는다면, 그 차이점들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풍성함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새한글』은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드릴 때 쓴다는 게토(ghetto) 의식이 굳어진다면, 『새한글』은 진술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공예배 중 성경 봉독 시 두 본문을 다 읽는 것으로 정례화 할 경우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사실 공예배에서 성경 봉독 순서의 시간적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 설교와 찬양, 찬양팀을 비롯한 공연적 요소들이 도입된 예배라면 더더욱 그렇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이에게 잘 전달되도록 두 가지 본문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예전적 방식으로 구현된다면 말씀 선포의 본래 의미가 더 충실하게 살아날 것이다.

3.2. 대조 성경(Parallel Bible) 보급

이 같은 지향성을 현실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조 성경의 출간과 보급이다. 한 페이지씩 마주 보든, 한 페이지 안에 두 칼럼의 형식을 취하든, 독자가 두 본문을 상시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구현할 경우 당연히 두께와 무게의 증가, 그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현실적 요소가 고려되어야겠지만, 기술적 연구와 설득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한 문제이다. 더구나 이러한 포맷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다면 최소한의 비용 상승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시적으로 두 성경의 본문들을 평행 배치한 형태로 본문을 접하게 하면 지속적 홍보와 공적 사용에서 매우 유익하리라 예상된다.

디지털 텍스트의 장점을 살려 성경 내 어떤 본문을 읽든 두 역본을 자유롭게 오가고 평행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텍스트 접근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성경 읽기가 일상화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행위가 자동적으로 두 본문을 함께 고려하고 그 개성을 인지하면서 읽는 독법을 실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법은 당연히 성경을 내재화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기한 점들이 고려되어 ‘『개역개정』—『새한글』’ 두 본문 성경이 보급되고 읽히면 오는 세대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쉽고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세대가 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새한글』, 『개역개정』, 욥기, 대조 성경.

Bible translation, New Korean Translation, New Revised Korean Version, Book of Job, Parallel Bible.

(투고 일자: 202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10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권지성, 『특강 욱기』, 서울: IVP, 2019.
-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자료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chan (2025. 2. 28.).
-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원문연구」 50 별책 (2022).
-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원문연구」 51 (2022).
-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원문연구」 56 별책 (2025).
- 래리모어, M., 『욕기와 만나다』, 강성운 역, 서울: 비아, 2021.
- 롱맨 3세, T., 『욕기주석』, 임요한 역, 서울: CLC, 2017.
- 박동현,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chan&wr_id=26 (2025. 2. 28.).
-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 해설집 — 마가복음 번역 해설, 시편 1-3장 번역 해설, 국어학적 의의 —』,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 박진우, 김예란, 『디지털 시대의 읽기문화: 쟁점과 전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 배런, N.,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종이에서 스크린, 오디오까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읽기 전략』, 서울: 어크로스, 2021.
- 아서스, J., 『말씀을 낭독하라: 커뮤니티 성경 읽기』, 김은정 역, 파주: 국민북스, 2012.
- 애쉬, C., 『욕기: 십자가의 지혜』, 전의우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14.
- 클린스, D. J. A., 『욕기 1-20』, WBC 성경주석 17,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6.
- 클린스, D. J. A., 『욕기 21-37』, WBC 성경주석 18A,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9.
- 클린스, D. J. A., 『욕기 38-42』, WBC 성경주석 18B,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14.
- 하경택, “욕과 욱기의 문제: 욱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2004), 47-76.
- 하경택, “욕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4 (2015), 264-301.

<Abstract>

**A Proposal for Bitextual Use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and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ith Samples from the Book of Job**

Sun Myung Lyu
(Baekseok University)

Since its appearance in 1998,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NKRV) has been the *de facto* standard Bible for the pulpit and personal use among Korean Christians. While the newly launched revision project of the NKRV for the 21st century is expected to be a fairly conservative ‘minimal revision’ in scope, the Korean Bible Society (KBS) recently published the New Korean Translation (NKT), a new translation aspiring to be both next generation friendly and accurate, as the KBS-sanctioned alternative translation for the public. The NKT has brought some major changes in translation philosophy including a rather dramatic shift in treating word order in translation Hebrew and Greek sentences into fluid contemporary Korean diction. As expected, this change has raised concerns for the ‘accuracy’ of the NKT and has spurred some heated debates among scholars and pastors. This study focuses on some key passages in Job to test how the NKT stands up against the NKRV in its linguistic and exegetical details.

Upon examining sixteen passages from Job (1:1, 3; 6:15; 8:13; 9:2; 11:6, 12; 17:16; 19:17; 20:3; 22:16; 26:7; 29:1, 4; 31:13; 36:3), the NKT appears quite impressive in attaining its stated goal of accuracy and readability, not just for the next generation but also for the general public. For example, in the NKT Job 1:1 introduces “(There was) a man in the land of Uz” before “Job was his name”, in a rather distinct syntactic structure and Korean sentence style that is not found in the numerous Korean versions of the past. Upon examination, the NKT closely resembles the word order of the Hebrew original. In its publication, KBS explains that the sizable number of inverted sentences in the NKT text is not merely a stylistic choice, but rather a concerted effort to reflect the communicative effect in the Korean word order and its communicative effect in the original language. This new approach has been well received by the younger generation who are more open to style variation including word order in the

‘biblical text’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tting. The older population, however, is more reluctant to these changes.

It is suggested, therefore, to go beyond promoting the NKT as a Bible transl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nd encourage its use as one side of the NKRB-NKT bitextual ‘canon’ for Korean churches, both from the pulpit and at home. If the two versions are routinely read, recited, and studied side by side, the public biblical literacy and appreciation will improve. The generation that uses the NKT and the NRKV in this complimentary way will be a blessed generation that will reap from their heightened awareness and depend knowledge of the truth and beauty of the Holy Scriptures.